

“땅과 인간의 오랜 관계, ‘농사’ 가치 담아내고 싶었죠”

2023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 전시 ‘그림으로 농사짓는 화가, 박문중’

내달 25일까지 의재미술관...40여년 작품세계 조망
농경 소재 인간·자연 단상 담아낸 총 65점 작품 선배

“인간이 씨를 뿌리고 기우고 거두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남도의 자연과 농촌을 배경으로 휴과 인간이 주고받는 서사를 그려내는 박문중 작

가의 전시가 다음달 25일까지 의재미술관 1, 2, 4전시실에서 열린다.

“그림으로 농사짓는 화가”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지난해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박 작가의 초대전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의재미술관이 공동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창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40여년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작품 총 65점을 선보인다.

1978년 의재 허백련의 연진회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잇고자 창설한 연진회미술원은 그의 본격적인 그림 인생이 시작된 곳이다.

작가는 연진회미술원 1기생으로 그림에 입문했다. 난초 선 그리는 연습에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마치 수련하듯 묵선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의 그림은 농경을 소재로 삼고 있다. 1980년대 휴을 재료로 한 실험적인 작품부터 19



의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 박문중 작가.



‘모내기’

90년대 수묵에 황토물을 이용해 그린 ‘농경도’ 작업, 15년째 아이들과 농촌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는 작품, 그리고 최근작까지, 농촌, 농경의 정서가 물씬 풍긴다.

신작인 ‘땅을 두들며 노래한다’는 농가월령가 중 3월령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논밭을 연상시키는 배경 위로 손에 손 잡고 줄지어 서있는 인물들과 그 위에 먹으로 새



‘춘설현’

겨진 글씨가 돋보인다. 파스한 늦봄, 씨를 뿌리며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들의 소박한 마음이 느껴진다.

의재 허백련에 대한 경의를 담은 ‘춘설현’은 한지에 먹, 채색, 흙물을 이용해 의재의 후학양성과 창작의 공간이었던 춘설현을 간결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 ‘모내기’에는 단순화된 인간 형상과 논밭의 지도기호인 ‘고’를 사용해 모내기의 풍경을 담아냈다. 작가가 사용하는 기호와 글자들은 그 자체로써 그림을 보다 쉽게 이해



‘땅을 두들며 노래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작업은 생명체가 뿌리내린 땅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교감해 얻은 산물이자 기록물이기도 하다.

작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논과 밭, 농경이 자연스레 떠올랐다”며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황폐해진 농촌 그리고 논을 주제로 베풀, 농부 등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작가가 오랜 세월 걸쳐 쌓아온 예술적 철학과 그가 바라보는 농촌과 인간,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생각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 내달 29일까지 ‘개관 5주년 기획 초대전’

김건일·나형민·이관수 작가를 만나다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가 ‘개관 5주년 기획 초대전’으로 초대한다.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는 다음달 29일까지 김건일, 나형민, 이관수 세 작가의 오랜 작업이 담긴 작품 65점을 선보인다.

개관 5주년 오프닝 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5시 디오션 호텔 로비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김건일 작가는 ‘자연적 매개물’을 통해 기억과 욕망의 세계를 표현한다. 작품 소재로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재현 대상이보다 기억과 욕망의 ‘유비적 관계’를 나타낸다. 초록빛 자연물은 기억과 욕망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며, 실존하지 않는 숲은 반추의 대상으로 만든 ‘몽환적’인 풍경이다.

김 작가는 “작품의 매개물을 통해 관람자들 역시 기억과 욕망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나형민 작가의 화폭에 담긴 지평너머에 그려진 산수는 현세를 초월하려 어딘가 있을 법한 이상향을 의미한다. 산수풍경은 명산이나 특정 산이 아닌, 작

가의 심상에 형성된 흉중산수다. 따라서 ‘산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과거의 선인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던 산수에서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듯이 산수자연을 보고 향유하는 외유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한 것이다. 산중에 즐기고, 산천에 거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관수 작가는 침묵의 시간을 화폭에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컬러를 배제한 회색톤을 주로 사용한다. 두터운 마티에르로 유화의 질감을 돋보이게 하며, 물감의 높은 밀도로 정통 회화의 깊이감과 작가 자신의 충만한 만족감을 더해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 감동과 위안을 전한다.

박은경 아트디오션 갤러리 대표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심을 담아 전시를 기획해온 만큼, 5주년을 함께해준 관람객들에게 이번에도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세 작가를 초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문화 예술을 더욱 확산하고, 관람객들이 예술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형민 작 '달산수도'



김건일 작 '비 그친 여름'

한편 아트디오션 갤러리 박은경 대표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호텔 ‘임페리얼팰리스 서울’에서 열리는 ‘제7회 히즈아트페어’의 예술총감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가을 밤, 나주추향에 취하다

내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가을 정취가 깊어가는 11월, 나주시립국악단이 나주의 가을밤을 전통음악의 울림으로 물들일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시립국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 ‘나주 가을에 울려 퍼지는 가무향 연(羅州秋響(나주추향))’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로 80분 동안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국악 관현악 ‘삶의 노래’를 시작으로 ‘안기옥류 가야금산조’ 등 나주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을 담은 무대가 관객들을 맞이한다.

또한 국악 아카펠라 등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곡들도 포함돼 있어 전통



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쉽게 접하기 힘든 현악기인 양금의 연주로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사전 예약은 나주시립예술단(061-339-2542)으로 이름과 인원을 남기면 된다.

입장권은 공연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배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깊어가는 가을 밤 시민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의 진면목을 선보이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시민들이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하고 나주만의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